

김동수 교수의 요한이 말하는 예수

3강 예수가 만난 사람들

I. 들어가는 말

1.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2장을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3-4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에 대한 칭호(예, 메시아, 독자, 하나님의 아들)나 예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3-4장은 예수가 개별적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2. 요한복음 3-4장에서 예수와 관계된 사람이 네 사람 나옵니다.

II. 세례 요한과 예수(3:22-36)

1. 누구?

-세례자: 세례 요한 이전에도 유대교에 세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쿰란 공동체에 입교하려면 목욕 세례를 해야 했습니다. 쿰란 유적지에 가면 에센파가 사용했던 목욕탕이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 일원들은 스스로 세례를 행했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2. 전개

-3장 22-23절에 보면 예수도 세례자, 세례 요한도 세례자라고 합니다.=그래서 예수와 세례 요한은 세례와 관계해서 경쟁 관계가 됩니다.

-활동 영역이 겹치면 동물도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는데 인간도 비슷합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와서 경쟁의식 고취시킵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예수]에게로 가더이다(현재형)”: 여기에 과장이 있습니다. “다” 예수에게 세례받으러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3. 세례 요한의 반응

1) 27절, 예수는 하늘에서 보내신 이다.

2) 28절,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다.

3) 29절, 자신의 신랑의 친구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다.

-유대교에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인 들러리가 결혼식을 주관하는 “쇼쉬벤”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들러리로 고린도교인들과 예수를 연결하는 중매쟁이라고 했습니다(고후 11:2).

-랍비들은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임무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들러리가 신부를 빼앗는 일은 극악무도한 일로 여겨졌습니다(cf. 사 14-15장).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무가 예수와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신랑의 들러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4)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와 나가 대조됨. “하야야 하리라”: 신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

4. 적용

1) 오늘날의 세례 요한처럼 되어야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인가요?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서하고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인가요?

2) 사실 모든 사역자의 임무가 세례 요한의 임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결혼식의 들러리가 되어야지 신부를 빼앗아 결혼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들러리의 역할은 재미없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드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29절)

III. 왕의 신하와 예수(4:43-54)

1. 누구?

1) 왕: 여기서 왕은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 왕(민족 왕)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그는 B. C. 4-A. D. 39년까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대왕이 B. C. 4년에 죽은 후 그가 다스리던 나라는 그의 아들들이 4등분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2) 왕의 신하: 왕의 신하는 헤롯 안티바스의 일을 보아주던 사람을 말합니다.

2. 만남

1) 47-49절.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병 치유를 요청합니다.

-예수의 반응: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마땅찮아합니다.

-왕의 신하의 재반응: “주여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49절)

-이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막 7:24-30; 15:21-28). 또 예수의 거절 모티브도 비슷합니다. 예수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사육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적과 기사는 방편이지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고 합니다(48절). 하지만, 왕의 신하의 요청은 끈질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어떤 메시아적 기대감은 없었으나, 예수가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2) 50-52절. 예수의 치유 행함: 흥미롭게도 위와 같은 간청에 예수는 “네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는 치유 선언을 합니다.

-예수가 이 사람을 더 귀찮힐 만도 한데, 예수는 그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비록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예수께 나왔지만, 예수는 그의 문제를 들어줍니다.

-이러한 예수의 행동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와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소문을 통해서였지만, 그도 그 표적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예수의 기적이 사실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가다가 자신의 종들을 만나,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보도를 듣고, 그 시간까지 확인해보니 바로 예수가 치유선언을 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무엇을 잘 따져보면서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따져보면서 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간 것입니다.

3. 결과

-53-54절. 왕의 신하와 가족의 회심

-결국 왕의 신하는 아들의 치유를 경험하고,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라는 말 속에 이 사람의 예수에 대한 관계가 이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의 사역을 따져보면서 예수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것을 통해 이 사람이 표적을 경험하고서야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부족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표적만을 좇고 믿음에 이르지 않은 사람도 많았는데, 이 사람은 실증적 신앙을 가졌었지만, 결국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4. 적용과 교훈

1) 예수의 표적만을 보고 환호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 때문에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유명해졌습니다. 마치 연예인을 환호하듯이 고향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표적과 기사만을 좇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2) 예수는 부족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표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에게도 표적을 보여줍니다. 예수께 나올 때 이기심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표적을 보기도 계속 이기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좇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3. 실증적 태도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진실하다면 결국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매우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로 예수께 접근했을지라도 왕의 신하는 양심적으로 그러한 태도에 충실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의 기적이 진실한 기적이고, 결국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확신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IV. 니고데모와 예수(3:1-21)

1. 누구?(1절)

1)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의 평신도 그룹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당시 총 6천 명 정도였으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2) 유대인의 지도자: 이것은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 격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로(요 11:47),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기구입니다(막 15:1).

3) 부자(19:39): 예수의 장례를 위한 향료가 많은 양(백 리트라)을 가져온 것을 보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2. 만남

1) 2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밤”: 부정적(9:4; 11:10)? 랍비를 찾아와 밤새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하고 찾아온 것을 보면 아마도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합니다.

2) 3절. 예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찬사에 대한 의외의 답변입니다. 사실 답변이 아닌 새로운 선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23-25).

-거듭: “아노덴”은 1) 위로부터, 2) 거듭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볼 수 없다: 체험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3)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오해: 1) 육체적 재출생으로 이해, 2) 거듭으로만 이해합니다.

4) 5절. 예수의 답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각각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1) 물은 물세례, 성령은 성령세례? (2) 물은 말씀? (3) 물(양수, 정액)로 나는 것은 자연적 출생?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

=물과 성령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 성령을 나타냅니다. 겔 36:25-27.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5)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구절에 비추어서 보면 물은 육적인 출생을, 영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 8절. 바람. 프뉴마. -성령. 영. 바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느끼지만, 그 원리를 다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7) 12절.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각각 땅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3. 결과

1) 직접: 본문에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유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3절 후에는 예수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대체로 본문에서는 부정적입니다.

2) 후일담: 예수님 변호(7:50-51)하고, 예수님 장례를 위한 향료 제공(19:39)한 것으로 보아 니고데모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4. 적용

1) 니고데모와 가장 비슷한 사람은 현재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기독교에 호의적인 종교학과 교수 혹은 기독교 내에서 말하자면 사회적 지위와 매너도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신자.

2) 지금 교회에는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있지 손자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각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납니다.

-종교 생활한다고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V.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4:1-30)

1. 누구?

- 1) 사마리아 사람: 한국 사람이 보는 일본 사람과 유사합니다.
- 2) 여자: 당시 남자에 비해 차별받던 존재였습니다.
- 3) 기구한 운명의 사람? 혹은 탕녀?(17절):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탕녀로 해석되었지만, 최근에는 기구한 운명의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여자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남자라도 세 번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혼은 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만남

1) 어려움:

-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예수 시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해 백성들이 끌려가고(722. B. C.) 남은 사람들과 여기에 몰려온 이방인들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 유대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 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세웠습니다. B. C. 2세기에는 사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전쟁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시리아 군주를 도왔고, 후에 유대교 제사장이었던 요한 히르카누스 왕은 그리스 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는 반목이 심했습니다.
- 남자와 여자: 중동에는 남녀 내외 문화가 당시에 도 지금도 있습니다.
- 보통 사람과 특별한 사람: 유유상종 문화에서, 정상적인 유대인과 기구한 운명의 여인과는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깨뜨리고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 사마리아 통과하는 하나님의 뜻(4절). 여기서 사용한 동사 '데이'는 신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러한 사마리아 선교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주도적인 실행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만남의 진행: 대화

- 물에 대해서 대화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물과 여인이 말하는 물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물은 영생 수 vs. 여인이 말하는 물은 먹는 흐르는 물입니다.
- 반전: 물 이야기를 하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네 남편을 불러 오라.”
- 여인은 방어기제를 발동합니다.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 자기 치부를 감추기 위해 자기합리화를 하는 기제를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 신적 능력을 통해 방어기제를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여인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고 말하여 전지함을 보여줍니다.
-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면서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케케묵은 갈등의 문제(예배 장소인 성전이 있어야 할 곳: 예루살렘이냐? 그리스 산이냐?)를 꺼내 예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참과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 사마리아인들도 “타협”이라는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25절).

3. 결과

- 예수의 계시(26절):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 여인의 간증(39절):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합니다(39-42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4. 적용

- 여인의 어떤 믿음이 그녀를 신앙고백으로 인도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된 것입니다.
- 이것은 구약 성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는 핵심입니다(3:16).

VI. 적용과 실천

1. 우리는 요한복음 3-4장에 나오는 예수와 조우한 네 사람을 다루었습니다.

- 예수와 네 사람의 만남은 호의적 만남이었습니다.
-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의 만남에는 다른 만남보다 긴장이 있었으나, 후일담에서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의 말씀에 감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만남에서 변화의 좋은 공식이 있습니까?

-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찾으면 예수와 좋은 만남이 있는 것일까요?
- 왕의 신하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찾아온 질병의 문제가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으나, 결국 그 기적을 맛보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은 경우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를 “이기적” 혹은 “기복적”이라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아세우는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크게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겠지요.

3. 여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만남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만남입니다.

- 여기서 주도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일부러 사마리아로 찾아갑니다.
- 여인의 방어기제를 무너뜨리면서 그녀에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 이러한 모습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 예수님은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열심히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 그녀는 예수를 거부하다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알아보고, 또 새 시대를 소개하는 그의 말씀을 믿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 우리도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때로 예수께 질문하기도 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요 7:37-39)과 열린 마음(요 9:35-41)이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를 만나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VII. 나가는 말

1. 오늘은 요한복음 3-4장에 나타난 예수가 만난 사람들을 다루었습니다.
2.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아들 예수”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